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72)

뭣하러 시간을 낭비하느냐

학승이 물었다.
“명의 편적이 어찌하여 병이 생겼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명의 편작은 병상을 떠나지 않아. 한 방울의 감로로 두루 천하를 적시지.”

問 扁鵲醫王爲什麼有病
師云 扁鵲醫王不離床枕
又云 一滴甘露潤大千

편작은 화타와 함께 중국 고대 2대 명의로 꼽히는 사람이다. 편작은 젊어서 고관의 집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장상군이라는 손님이 그 집에 찾아왔는데, 그냥 보기에도 범상한 사람은 아니었다. 장상군은 그 뒤로도 자주 찾아왔고 편작은 그를 늘 정성스럽게 모셨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어느 날 장상군이 찾아오더니 편작을 불러 마지막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사람의 만병을 치료하는 비방을 알고 있다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 기력이 없어. 그래서 그대에게 비방을 전수하려고 하네. 다만 결코 남에게 알려서는 안 되네.”

편작은 정중하게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자 장상군은 품속에서 약을 꺼내 편작에게 주면서, “풀잎에 맺힌 이슬을 받아 이 약과 함께 한 달간 먹어 보게. 그러면 무엇이든 볼 수 있을 걸세”라고 말했다. 또 비방이 쓰인 책들을 모두 편작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사취를 감춰 버렸다.
편작은 그가 일러준 대로 한 달간 약을 복용했다. 그랬더니 답답 너머의 사람 모습까지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병자들의 내장 속 종기까지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그저 맥을 짚어서 알 수 있다고 말할 뿐이었다. 편작의 명성은 순식간에 널리 퍼졌고 나중에 죽어가던 괴나라 태자를 살린 후에는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사마천의 말대로 ‘여자는 궁중에 있으면 밭든 굶든 질투를 받게 되고, 선비는 똑똑하든 말든 조정에 있으면 의심을 받는다’ 하더니, 편작이 진나라에 있을 때 진나라의 시종(侍從) 이해는 편작을 시기해서 자객을 보내 편작을 죽여 버리고 말았다. 노자가 말했다. ‘너무 이롭다고 좋은 것은 불길함의 징조이다’라고.

학승이 명의 편작이 왜 병이 들었냐고 말한 것은 하나의 비유이다. 실제 《사기(史記)》에 편작이 병이 들었었다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유마경》에서는 보살이 중생을 위해서 병든다는 말이 나온다. 여기서 보살은 유마거사이다.

학승은 유마를 편작에 빗대어 명의인 보살이 중생을 위해서 병든다는 것을 조주 선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질문한 것이다.

그러자 조주 선사는 “명의 편작은 병상을 떠나지 않아. 한 방울의 감로로 두루 천하를 적시지”라는 말로 유마를 평했다. 명의는 가만히 앉아서 감로수 한 방울로 천하 사람을 일깨운다는 말이다. 여기서 감로수는 모든 중생의 병을 낫게 하는 신호한 약이다. 도대체 유마가 쓴 감로는 무엇일

까? 유마의 감로는 제쳐놓고 그러면 조주 선사는 대체 어떤 감로로 사람들을 일깨우고 있는가? 나에게 묻는다면 다음과 같이 대답하겠다. “어험!”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노지(露地)의 흰 소(白牛)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축생이야.”

問 如何是露地白牛
師云 畜養生

노지(露地) 위에 흰 소는 심우도에서 공부를 거의 끝낸 수행자의 마음을 표현한 그림이다. 검은 소가 차차 흰 소가 된 것은 탐진치 삼독이 떨어 있는 무의식을 극복하고 순수한 의식만 남아서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경계이다. 흔히 유식에서 말하는 제9 백정식(白淨識) 단계까지 이른 것일 것이다.

그런데 조주 선사는 그런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의 정신 소유자를 비유한 백우에 대해 다만 ‘축생일 뿐이야’ 하고 시큰둥하니 한마디 던지고 말았다. ‘사람은 본래 부처이다. 아무리 갈고 닦아도 사람은 사람이 되지 사람이 기왓장이 되지는 않는다. 본래 사람이 되어있는 것인데, 뭣하러 또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 오랫동안 시간을 허비하는가?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자신이 완벽한 부처인 것을 깨닫고 바로 부처의 길을 가라!’ 하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이것이 육조 문종의 참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선어록 해제 22 한국선과 선어록 22

선종사의 몇 가지 논쟁

선학의 발전 가져온 논쟁

선의 발생은 석존으로부터 간주한다. 이후로 수행과 깨침의 문제로서 원시불교와 아비달마불교시대를 거치면서 선법에 대한 다양하고 정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다양한 선수행법이 도출됐다. 특히 사선팔정 및 구차제정의 정립과 삼삼매·사념처·오정심관·팔해탈·십번처·심육특승 기타 삼십칠조도품의 정립 등의 교의와 유가수행의 전개는 선종의 발전을 이루었다.

이후 불교가 500여 년에 중국에 전래돼 중국불교사에서는 소위 반역시대를 거쳐 연구시대에 이르면서 전역된 경론을 바탕으로 하여 그에 드러난 다양한 선수행법이 활용됐다.

가령 《선비요법경》(좌선삼매경) 《안반수의경》 등에 근거해 주로 관법위주의 수행이 실수되고 체현되면서 선법이 널리 보편화됐다. 그러나 6세기 초에 보리달마의 중국도래에 의해 달마가 전승한 선법을 바탕으로 한 선법의 본격적인 전개가 이루어지면서 중국에서 실수되고 있던 기존의 선법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곧 달마의 후손들은 중국에서 전승되어 오던 기존의 선수행법 가령 습선자(禪禪者)들의 사념처 수행법을 소승선법으로 폄하하고 자파의 선

면 그 법맥에서 등장한 운문종과 법안종은 그대로 청원행사 계통에 속한다. 그러나 마조도일의 문하에서 배출한 천왕도일을 인정하면 그 천왕도일은 다름 아닌 천황도일과 동일인물이라는 주장 아래 임제종과 위양종은 물론이고 운문종과 법안종이 모두 마조도일의 계통에 속한다.

후자의 주장은 일찍이 인도의 제27대 조사 반야다라의 ‘그대의 법맥으로부터 망자 한마리가 출현하여 천하를 짓밟아버릴 것이다’ 라는 예언의 실현을 염두에 두고 제기된 주장이다. 그 참언을 현실화하기 위해 천황도일을 낱조라고 그 천왕도일이 나 름 아닌 천황도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천황도일에서 출현한 운문종과 법안종은 당연히 마조의 법맥으로부터 출현한 것으로 주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에 일본의 호관사원은 《오가본》에서 조동종마저도 마조도일의 법맥에서 출현했다는 주장을 해 선종 오가가 모두 마조의 법맥이라는 주장을 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조선시대 청허휴정의 《선가귀감》에도 그대로 수용됐고, 이후 환성지언의 《선문오종강요》의 서문에도 고스란히 수용됐다.

그러나 청대의 백암정부는 기존의 여러 가지 비명고 전등사실을 통해 천왕도일을 내세운 주장은 완전하 날조된 것이라는 증거를 여러 가지 면으로 주장하는 《법문서귀》를 저술했다. 그 《법문서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가 본 《용담고》이다. 결국 백암정부는 천왕도일의 존재를 부정하고 석두회천의 법사인 천황도일의 존재를 확정해 오늘 날과 같은 청원행사 밑에 속하는 조동종·운문종·법안종과 남악회암 밑에 속하는 임제종·위양종이라는 선종오가의 법맥을 밝혀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종의(宗義)에 대한 논쟁의 역사도 동시에 전개됐다. 동산양계 및 조선본적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정중편·편중정·정중래·편중지·검중도의 형식으로 드러난 조동종종의 위위사상에 대한 것이 그 하나이다. 곧 조동종 지파에서 주장하는 정중편·편중정·정중래·편중지·검중도의 형식에 해당하는 검중도 중심설과 임제종 계통에서 주장하는 정중편·편중정·정중래·검중지·검중도의 형식에 해당하는 정중래 중심설이 그것이다. 이 문제는 결국 고려시대 가지산파의 일연선사에 의해 결국 검중도를 중심으로 하는 조동종의 정통교의로 마무리됐다.

한편 임제의현의 삼구법문에 대한 전승은 12세기 후반의 《인천안목》, 고려 중기의 《선문강요집》, 조선 후기의 《선문오종강요》 및 《선문수경》을 비롯한 임제삼구의 전통적인 해석과 관련한 삼중선의 주장은 조선시대 후기까지 지속되었다.

이에 대한 조의의순의 반박으로 등장한 《선문사변만어》는 네 가지 주제에 의거해 백파경선 임제삼구의 문제에 대한 조의의순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보리달마의 불교 전승 이후에 활발한 선종사적 논쟁 생겨나

법을 대승선법 내지 최상승선법으로 간주했다. 특히 《반야경》 《유마경》 《능가경》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등의 대승경전의 사상에 근거한 대승선법의 가르침이야말로 여러정정선으로서 달마를 위시한 조사선법의 근간으로 간주됐다.

200여 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조사선법의 발전과 전개를 통해 소위 남종과 북종이라는 정통의 주도권 논쟁으로 전개됐다. 곧 본래성불의 사상에 근거해 8세기 중반에 치열했던 무념(無念)의 돈오견성(頓悟見性)과 이념(離念)의 주심간정(住心看靜)이 그것이었다. 나아가서 수백년에 이르는 동안 돈오견성에 근거한 평상심과 즉심시불 사상의 전개가 12세기에 수행방식의 차이로 인한 간화선(看話禪)과 묵조선(默照禪)의 차별로 드러났다. 화두를 참구해 깨침을 추구하는 방식과 철저한 묵조선법을 통하여 본래불을 자각하는 방식의 차이였다.

나아가서 법통의 논쟁에 대해서는 석두회천 문하의 천황도일 및 마조도일 문하의 천왕도일이라는 인물의 설정으로 인한 선종오가의 법맥에 관하여 청대 초기에 이르도록 지속적으로 전개됐다. 소위 전통법맥에 대한 논쟁이란 마조도일 문하의 천왕도일과 석두회천 문하의 천황도일의 인물을 둘러싼 논쟁을 가리킨다. 곧 천황도일과 천왕도일의 인물을 두고 동일인인가 혹은 각각 다른 인물인가 하는 논쟁, 나아가서 동일인물이라면 천황도일이 맞는가 천왕도일이 맞는가 하는 논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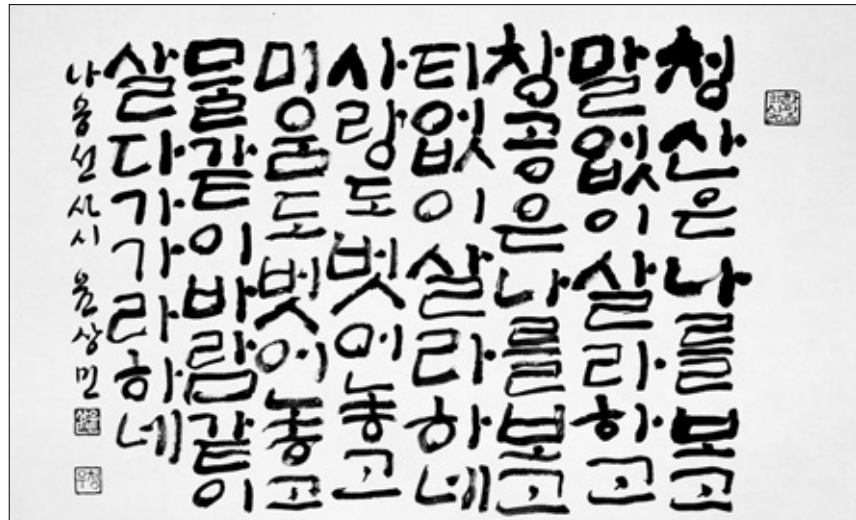
석두회천의 문하에서 배출된 천황도일을 인정하



김회국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운상민의 서화산책 20 내용 선사 어록

청산은 나를 보고



青山兮要我以無語 蒼空兮要我以無垢 聊無愛而無憎兮 今水如風而終我
(청산혜요아이무어 창공혜요아이무구 요무애이무증혜 여수어풍이종야)
- 내용 선사

송: 어조사 해
聊: 애오라지 요
蒼: 푸른 장
垢: 때 구
憎: 미울 증



서재가·동아미술상 수상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집중 5일완성
저자: 법화중현(정효교) 큰스님 직강



· 자비실천불교연합회장
· 녹야선원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궁법 저자

강 의

목, 금, 토요일
오후 2시 ~ 5시
상담: 010-7415-0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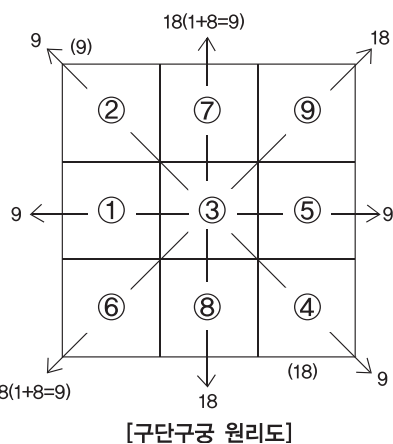
-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 사찰·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상표등록번호: 40-0863341호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호

*** 강의 일정표 ***

- ◆ 제1일 - 구단 구궁의 제법칙
- ◆ 제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3일 - 부교재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 제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구단구궁을 수료하신분들께 감사드리오며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일정표에 맞추어서 재수강 하시기 바랍니다.



[구단구궁 원리도]

학 과	기간 / 요일 / 시간	강 의 과 목	비 고
불 교 학 과	[기간 - 2년] 금요일 : 저녁 7시 - 9시	· 유식사상 · 화엄학 · 대승기신론 · 답사학	대학원과정 (학사이상)
불교교리학과	[기간 - 6개월] 화요일 : 오전 10시 - 12시 저녁 7시 - 9시	· 사찰예절 · 근본교리 · 부처님생애 · 반야심경 · 포교방법론 · 초발심사경 · 천수경 · 금강경	포교사 법사
장례지도학과	[기간 - 6개월] 월요일 : 저녁 7시 - 9시	· 관혼상제 · 장례식장경영론 · 장묘제도(법규) · 공경보건학 · 상담학 · 장례학 개론 · 불교장례이해 · 실습	장례지도사 1,2급 불교장례지도사
풍 수 학 과	[기간 - 1년] 월, 수, 목요일 저녁 7시 - 9시	· 생활풍수 · 음택/양택 · 풍수학 개론 · 패혈 · 방위학 · 부동산풍수 · 풍수인테리어 · 지리오결	풍수 지리사
명 리 학 과	[기간 - 6개월] 화, 수, 금요일 저녁 7시 - 9시	· 생활역학 · 작명 · 사주명리학 · 관상학 · 궁합 · 택일 · 실전명리	명리심리상담사
이수명리학과	[기간 - 8주] 토요일 : 오후 2시 - 6시	· 이수명리학 · 명리36공수 · 적천수 · 12운수 · 간파명문 · 오자술	이수명리학회 회원증
타 로 학 과	[기간 - 4주] 금요일 : 저녁 7시 - 9시	· 메이저아르카나-22장 · 마이너아르카나-56장 · 실전타로학	타로카드 마스터사 (1급)
구단구궁학과	[기간 - 5일] 목, 금, 토 : 오후 2시 - 5시	· 구단구궁학개론 · 비법교재	한국구단구궁학회회원증